

## 한국에는 한국적 건축이 없다

-현충사 충무공이순신기념관 현상설계에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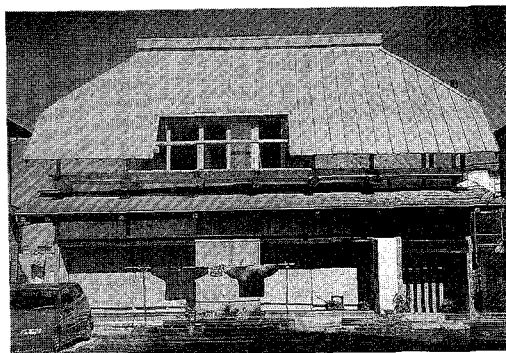
김 여란지최 기럭시머 홍식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 가. 한옥의 계승 발전.

나는 일전에 (2006. 6. 24) 오랜 내 벗 안도방광(일본 쓰쿠바대학 인간종합과학연구과교수 - 건축예술과가 이렇게 종합대학으로 바뀌었다)을 초청해서 “전통목조를 응용한 지방의 주택과 공공건축”이라는 강연을 듣고 그의 저서 “주거를 4치각으로 생각한다.”라는 책을 선물 받았다. 나는 아직도 여기 한국에서 현학적인 언어의 유희를 즐기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대단히 실용적인 현실적 학문을 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일본의 구조법인 4치각의 목재로 주택을 설계하고 지어가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그림 1-1] 이전 재생 전의 민가 (명치시대 초기)



[그림 1-2] 이전 재생 후의 남측 외관

해체재를 구조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신재를 썼다. 구조체를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생긴 2층에는 햇볕이 들 수 있도록 발코니를 만들었다. (위의 책 93쪽 상, 중)

전통의 계승이란 그것의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지만 극복이란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전통건축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건축계는 우리 건축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 분들이 주도를 한다. 그럼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최소한 우리나라 전통건축 100개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정도 말이다. 물론 축척은 틀릴 수 있으나 머리 속에 기억은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전문가라고 한다면 1천동 이상은 머리 속에 넣고 굴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그린 실측도면, 보고나서 “아! 여기가 틀리지 않았을까요?”

하고 물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시도를 해 보자. 보다 근본적인 원리부터 다시 챙겨보자. 그것은 완전한 부정일 수도 있다.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왔지만 닭이 돼서도 달걀의 껍데기 안에 자신의 외형을 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내부에 그것을 안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

다음 글은 내가 내일신문 칼럼에 냈던 글인데 여러 사람이 읽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음미해 보고 현실을 비평해 보자.

### 1) 우리는 전통건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봄이 되면, 우리나라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황소개구리를 잡아야 한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입했을 텐데 이젠 도리어 돈 주고 퇴치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산물도 마찬가지다. 값싼 이웃나라 농산물 수입이 격심해지자 농림부에서는 사방에 신도불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우리 농산물 판촉에 열을 올렸다. 얼마 전 양재동에 서 있는 aT센터 건물에도 그런 표어가 크게 걸려 있었고 지금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어가 붙어 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은 국산을 주장하면서 건축은 한옥으로 짓지 않았을까? 조형 언어만 외국 것이 아니고 거기에 쓰인 재료조차 외국산을 많이 쓰고 있다. 이로부터가 그렇지 않은가? 왜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스캔들이 될까? 이런 현상은 비단 이 건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문화인들이 국적이 있는 건축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름 있는) 건축가들은 오블관연, 서양식 모던건축을 추종한다. 왜 그럴까?

우선 요즘 건축가들은 한국건축에 대해 너무 모른다. 아니 싫어한다. 어쩐지 구질구질하고 몸에 닭살이 돋는다. 언젠가 살아보길 했나, 배우길 했나, 도무지 친숙할 수가 없다. 도대체 대학 건축과에서도 전통건축은 가르치지 않는다. 만약 교과목에 있다면 그것은 단지 교양과목 수준이다. 어릴 때부터 판소리를 들어 본 놈이 판소리를 좋아하고, 김치찌개를 먹어 본 놈이 얼큰한 동태찌개도 좋아 하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한옥에서 살아 보지도 못하고 대학 정규과정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한국건축의 맛을 재현한다는 것인가?

### 2) 대학에서는 한국건축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가르치지 않는 것일까? 한 마디로 가르칠 사람도 없다. 교양과목으로 외부에서 강사나 불러다가 시간을 때울 수는 있지만 한옥 설계를 본격적으로 가르치지는 않는다. 아니 시간을 내서 가르쳐야 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 우선 대학 당국은 교수진을 모두 외국 유학생으로 채우고 싶지, 우리나라 출신자 국산은 싫어한다. 한마디로 영어라도 한 소절 써붙여야 교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능력 있는 놈은 너도 나도 외국 행이다. 정 돈이 없으면 인도나, 필리핀이라도 간다.

이렇게 해서 어렵사리 대학 교수가 되신 분들이 우리나라 문화환경을 좌우하는 건축 현상설계 때는 심사위원으로 선임된다. 대학교수란 타이틀이 얼마나 좋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은 많고 건축과 교수는 더 많으니, 이분들이 무슨 철학을 가지고 우리나라 건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는 알 수 없다. 심지어 우리말을 버리고 미국말을 공영어로 쓰자고

주장하는 판이니까…… 그들 눈에 한옥은 지지분하고 덜 세련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절집 옆에도 영 맞지도 않는 양옥을 짓는다. 명색이 우리나라 불교의 총본산이라는 조계종 총무원 건물을 보라! 문화재로 지정된 우정충국과 조계사 대웅전에 등을 기대고 있는데,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는 것인지…… 꼭 양옥이어야 했을까? 의문이 든다.

### 3) 한옥도 경쟁력이다.

우리나라 문화의 산실이라는 인사동에도 최근 세련된 몇 채의 건물이 들어섰는데 모두 한옥이 아니다. 서울에서 유일한 한옥보존지구인 가회동도 한 채, 두 채 한옥이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 한옥을 사랑할 것만 같은 문화부, 문화재청에서 짓는 건물 - 문화재 한옥 옆에 짓는 전시관 건물도 한옥을 선호하지 않는다. 세계화에 편승해서 경사지붕을 배척하고 서양식 모던건축이 판을 친다. 서구의 전원도시가 아름답다고 말한다. 물론 숲과 어울려서 그렇겠지만 개개의 건물은 별로 예쁜 구석이 없다. 다만 비슷한 공통된 조형언어를 구사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우리 도시가 아름답지 못한 것은 조형언어가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그렇다.

우리나라에도 한옥만 지을 수 있는 마을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회동처럼 안 지어도 그만인 게 아니고 층수(건축 용적)는 풀어주면서도 외형은 한옥인 그런 마을 말이다. 또한 문화재 주변에는 한옥만 짓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옥 문화재가 쓰레기 더미 속에 피어 있는 한송이 외로운 꽃처럼 보이지 않게, 일정 정도 주변은 한옥에 둘러싸일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의장도 세련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건축단가도 저렴해질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문화부에서 짓는 관공서 집들은 모두 한옥으로 지어보자.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경주 황룡사 9층탑도 복원하고 이보다 더 높은 한옥 목탑도 만들어 보자. 축구장도 한옥으로 지어보자. 이제 한옥도 경쟁력을 갖춘 세계 제일의 건축으로 거듭 태어날 때다. (2006. 4. 15)

## 나. 문화재 주변에서의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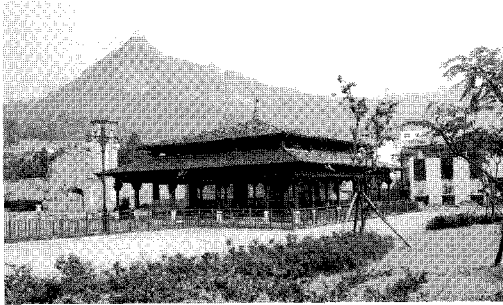
### 1) 어떤 것이 지역성을 반영한 건축물인가?

나는 10여년 이상 제주시에 건축상을 선정하기 위해, 매년 한번씩은 제주 현대건축을 감상한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구동성으로 제주다운 건축을 대상으로 뽑아야 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단 한 작품도 참여하지 않는다. 아니 아직도 건축가가 지역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오히려 진부하게 들리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은 각 지방마다 제주적이고 부산적이며 경기적인, 혹은 호남적인 건축의 탄생을 기대한다. 이렇게 각 지방마다 지역적 특성이 살아나는 건축을 할 수는 없을까?

나는 년전에 진도 배중손 사당을 설계하면서 (유명 건축가가 생각하면 설계할 것도 없겠지만……) 진도식? 익공을 찾지 못해 배중손의 정신을 기려서, 진도의 명물인 진돗개와 학을 초가지의 모티브로 삼아 그려줬다. 필경 목수는 도면도 보지 않는 듯, 1/10 상세까지 그려줬는데도

지 멋대로 경기식 초가지를 초각하고 말았다. 고쳐 달랠 수도 없고…… 결국 우리나라 전국이 경기식으로 천천히 바뀌어 간다. 문화재조차도 그렇다.

또한 나는 년전에 서대문에 있는 “유관순 지하옥사 보호각” 설계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철골조로 지으라고 했지만 나는 목조건축을 고집했다. 구조는 주심포식으로 하고 외관은



[그림3-1, 3-2]  
유관순 지하옥사  
보호각 외관

1910년대에 도입되었던 서양식 건축을 한식으로 바꾼 양식을 선택했다. 특히 중층에 동판을 얹었는데 이것이 대중들에게는 맘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한옥을 근대화하려고 하면 당장 일식이라고 매도하는 조형적 국수주의에 말려들고 만다. 막상 서양식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말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적 건축이란 반드시 전통 건축에서 모방하는 것도 아니며, 현대건축의 조형언어를 차용한다고 할지라도 지역적 정서에 맞는 독특한 조형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역 건축가들은 대중적 유행을 거부하지만, 지역적 정서에 알맞기 때문에 유행에 의해서 지역성을 획득해 가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지역적 건축이 유니크하면서도 세계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것은 세계적 건축이고 지역건축이기도 한 것이다. 반드시 외관이 한옥이거나 혹은 전통건축을 계승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 2) 왜 한옥은 지저분한 것일까?

세계 어디를 가나 일식 음식점은 독특하고 깨끗한데 대신 값도 비싸기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일식집도 대충 그렇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우리나라 실내건축가(?)들이 일식집은 제법 비슷하게 모양을 낸다는 것이다. 반면 한식집은 어딘가 비뚤어지고 벽이 떨어져야 - 한마디로 지저분해야 - 맛이 나는 것으로 착각한다. 물론 두 경우 모두 일식집도 모르고 한옥도 지을 수 없는 목수도 아닌 목수를 데리고 집을 짓는데 그렇다. 왜 그럴까?

일본 건축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 아직도 전통목수가 보통 집을 짓고 있으며 전통건축 자료집, 조형 언어집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 특히 일본 건축 잡지에서는 일본 건축의 응용된 조형언어가 수 없이 소개되어 있다. 반면에 우리는 일본 것 배끼는데도 바빴다. 일본은 벌써 해방 후 3번째 건축자료집성을 개정하고 있다. 우리는 번역서조차도 개인 출판사의 힘에 의지하고 있는 판인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건축가 없는 건축가에 의해 지어지는 초가집 모양의 비뚤어진 버섯집이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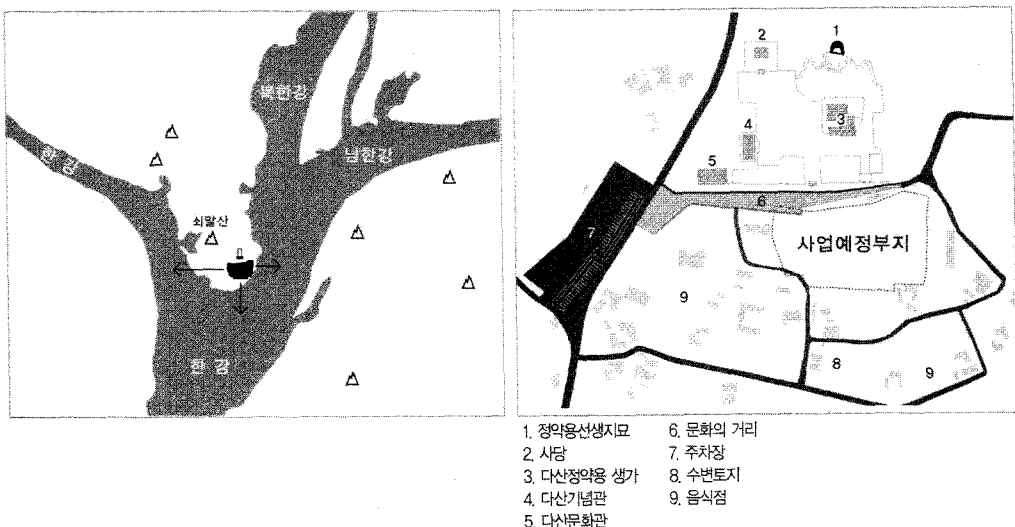
유행을 하고 있다. 지붕은 둥근데 대체로 깨진 항아리를 덮었고 창문은 막대기를 걸쳐 만들었는데 비뚤어졌다. 한마디로 디즈니랜드 동화책 스펀프에나 나올만한 집이다. 아야! 우리 민중들은 이런 집을 좋아 했나보다. 예전 도학자들이 이상으로 꿈꾸었던 초당이 이런 형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칼날 같은 섬세함이 있어야 한다.

택견 자세를 보자. 슬렁슬렁한 것 같지만 굳셈이 있다. 그렇지만 택견하고 대련을 할 때 상대가 슬렁슬렁 자세를 취하지 않아서 졌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자면 외관은 대단히 자연적이라고 할지라도 내부는 탄탄한 기술이 뒷받침해야 하는데 내부조차 날카로움이 없고 얼렁뚱땅 실경(결구)하고 말았다. 내부의 공간 구축, 이를 구성하는 구조법 자체가 아마추어의 단계를 뛰어넘는 프로 기술자의 수준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건축가들은 외관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그것이 둘러싸고 있는 공간구축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 3) 현충사 충무공이순신기념관 설계경기에 바란다.

요즘 문화재 주변에 지어지는 전시관 현상설계에서 한옥은 모두 추풍낙엽이다. 몇 해 전 해인사 입구에 전시관을 김석철선생이 설계하고 한때 양옥 전시관이 스님들에게 못매를 맞은 적이 있다. 그리고는 잠깐 전시관조차 한옥으로 돌듯 하더니, 다시 해인사 전면에 조성룡선생이 설계한 참배전(?)이 너무 크고 양옥으로 설계되었다고 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이는 문화재위원이 고루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2005년 문화재위원회는 훨씬 젊은 사람으로 교체되었고 오히려 문화재를 모르는 문화인 건축가들을 문화재위원으로 대거 영입했다. 이 뒤부터 문화재 주변 전시관도 모두 평지붕의 모던건축으로 바뀌게 되었다.

최근에 현상설계를 한 “경기도 실학박물관”을 보자. 설계 공모당선작은 “하늘, 강, 산과 잘 어울린다.”는 캐치프라이즈를 들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배치도를 살펴보면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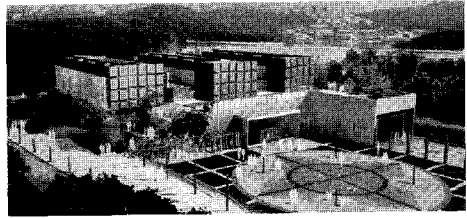
[그림4-1] 주변 환경

이나 산, 모두가 곡선인데 여기에 네모 상자 3개를 연속해 놓고 그 앞에 기다란 상자를 붙여서 입구를 내고 강과 산에 어울린다고 주장하니…… 가당치 않다. 더구나 여기는 다산 생가 (제 위치는 아니지만) 바로 코앞에 아닌가?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한옥으로 만들 수는 없었을까? 여기 강변 마을이라도 전체를 한옥 촌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최종안을 살펴보면 너무 거창한 입구를 축소하기 위해서 입구 앞마당을 없애버리고 고즈넉하게 조용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구는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는 역지 춘향으로 입맞춤하는 꼴이다. 마당을 두지 않더라도 대면성을 생각해서 올라가 오른쪽 모퉁이에 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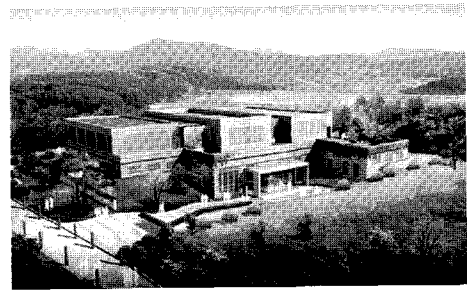
이보다 오히려 이공의 안이 훨씬 생태적으로 보인다. 조감도에서 바라보는 건물이 너무 거들먹거리어서 그렇지 건축계획방향을 읽어 보면 부지의 생태를 이해하고 이를 건축적 공간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다. 다만 완성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시도 자체는 대지에 파묻히는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다만 시도와 결과가 일치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마지막으로 금성의 안을 보자. 지붕을 경사 지붕으로 하고 여러 채의 건물로 나누어 연속시켰고 건물도 높지 않으므로 주변 환경과도 조화롭게 끌고 가고 있으며 다산 생가와와의 조형도 조화시켜 보려고 노력한 듯 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조감도 상에서는 한옥의 맛을 잃고 있다. 한옥의 조형언어를 현대화해서 구사하는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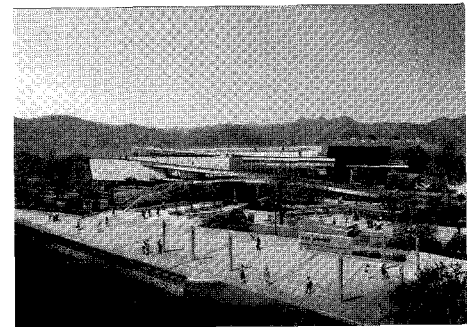
다시 말해서 현재의 건축가들이 이런 능력 - 한옥 조형언어의 자유로운 구사 능력- 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를 평지붕의 모던 건축 쪽으로 끌고 가면 우리의 건축 장래는 밝다고 말할 수 없다. 바로 옆에 우리가 존경하는 다산의 생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조형언어를 끌고 오는 노력을 왜 우리는 경주하지 않는 걸까?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대



[그림4-2] 경기도 실학박물관 조감도 (설계공모 당선작)



[그림4-3] 경기도 실학박물관 최종안



[그림4-4] 이공 작품



[그림4-5] 금성 작품

학교수들…… 그곳에서는 역사적 조형언어를 읽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봐 왔을 텐데…… 우리는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곡리 유적은 전혀 다른 성격이다. 물론 거기에도 역사환경적 조형언어가 잠재해 있겠지만 여기 능내리처럼 실학의 대가 다산 생가가 코앞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산 생가가 가지고 있는 조형요소를 읽고 이를 자신의 작품에 끌어들이면서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건축 작품은 결코 없을 것인가?

최근에 현충사 충무공이순신기념관 설계경기(문화재청 보도자료 2006. 6. 2)가 시행 중이다. 여기에도 한옥 사당이 있고 한옥으로 지어진 유물전시관이 있다. 그러나 이미 발표된 설계심사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한옥으로 풀기는 어렵겠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한옥은 털 세련되었을 테니 말이다. 그만큼 우리 한옥의 기술 발전은 후퇴하게 될 것이다. 언제 이런 논의라도 시원스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2006. 7. 12)